

청소년의 학교적응 변화와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시간효과 연구*

이은경** · 김민환*** · 이유진*** · 이응택****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학교적응 변화추이를 확인하고, 학교적응의 변화양상에서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시간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동일 청소년을 반복추적 하여 조사한 아동·청소년 패널 종단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은 모든 변인에 결측값을 보인 대상을 제외한 2,312명(여 1,148명, 남 1,164명)을 선정하였고, 분석방법은 본 연구목적에 맞는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적응 변화는 무변화 모형과 일차함수 모형 보다 이차함수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 2학년 시점을 기준으로 학교적응은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감소하는 양상을 의미한다. 둘째, 학교적응에 대한 시간의존변수로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시간효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동시효과는 중학교 3학년 시기에서만 발견되었다. 중학교 3학년 시기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중학교 3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지만 다른 학년에는 동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연효과는 중학교 2학년 시기에만 확인되었다. 중학교 2학년 시기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중학교 3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다른 시점에서는 지연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고등학교 시기의 학교적응에는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시간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기 학교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과 학교폭력 피해경험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위한 시기별 개입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학교폭력, 학교적응, 시간효과

* 이 논문은 2016년도 명지대학교 일반교원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제 6회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발표원고를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제1저자

***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청소년지도학전공 석사과정, 공동저자

****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시간강사, 교신저자, samneng@hanmail.net

I. 서 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간다. 누구나 출생 직후에는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고 적응을 해야 하며, 학령기에 접어들면 학교라는 새로운 세계에 적응을 해야 한다. 학교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회적 환경이자 시간적, 활동적 주요무대로서 전인적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공간이다. 또한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규범을 내면화하고 스스로의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김희수, 윤은중, 2004). 그러므로 학교적응이란 학교 규칙 혹은 또래, 교사관계 등의 다양한 학교 환경요인들로부터 심리사회적으로 안정과 지속성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김희수, 이재토, 홍성훈, 2006). 청소년의 성공적인 학교적응은 긍정적인 사회관계 형성과 가치의 확립을 가져와 청소년기 이후의 사회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 학교적응의 실패나 적응과정에서의 어려움의 발생은 청소년기 이후의 대인관계 및 심리적 문제, 사회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김명식, 2008). 이처럼 인생의 발달단계에서 청소년기의 학교적응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학교폭력은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관련되어 중요하게 언급되는 어려움에 속한다(이은희, 김남숙, 2011; 학교폭력예방재단, 2008).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학교적응의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잦은 지각, 등교공포, 등교회피 및 거부, 또래관계 문제, 학업의 집중저하, 학업성적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은 학교생활에서의 고립뿐만 아니라 비행과 범죄의 일탈행동으로 연결되기도 한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9).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청소년은 교사관계, 또래관계, 학교수업, 그리고 학교규칙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여 학교적응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다(Baker & Stryk, 1984). 전반적으로 학교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은 인지와 정서, 그리고 행동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학교적응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장안식, 2013).

지금까지 학교적응과 학교폭력의 관련성을 파악한 선행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연구자들은 학교폭력 피해와 학교부적응, 성적저하 간의 상관관계와 일부 보호요인을 밝히거나(박경아, 2002), 피해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의 과정연구(이진숙, 조아미,

2012; 이은희, 김남숙, 2011),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들의 학교적응(김재엽, 장용언, 민지아, 2011) 등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횡단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특정시점에서의 학교적응 및 학교폭력 수준과 영향 요인간의 관계만을 설명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발달과정 중에 있는 청소년기의 특성상 특정 시점의 학교폭력 사건은 발생시점 후의 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종단적인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명명될 만큼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학교폭력과 학교적응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많지 않다. 대부분 학교적응에 대하여 종단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다른 변인들에 더 주목하고 있다. 좌현숙(2012)은 청소년 학교적응의 종단적인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적응 수준이 점차 높아진다고 보고하면서, 학교적응 초기값에 자아존중감, 자아통제, 자기신뢰의 개인요인이, 그리고 부모감독, 부모애착, 부부갈등, 자녀학대, 빈곤, 가족구조의 가족관련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학교관련요인으로는 학교친구애착과 교사애착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나 학교폭력요인은 살펴보지 못하였다. 이희정과 조윤주(2010) 역시 학교적응의 종단적 변화에서 어머니의 교육수준, 자기존중감, 부모-자녀관계 등의 요인이 중요하다고 보고하였으나 학교폭력에 대한 요인은 살펴보지 못하였다.

한편, 학교폭력의 피해경험에 대한 종단적 영향을 살펴본 몇몇 연구들이 있었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종단연구(권재기, 2011)에서는 학교폭력 피해경험 이후, 청소년들의 우울, 불안, 신체공격성, 자살충동 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피해청소년의 자아태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자아존중감 또한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허성호, 박준성, 정태연, 2009).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는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일정시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발달함에 따라 그 영향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학교적응의 관계를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시간에 따른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 변화에서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시간의존 변인으로 투입하여 각 시점에 따라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즉, 학교적응의 발달과정에서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같은 시점에 영향력(동시효과)을 지니는지

파악할 뿐만 아니라, 현 시점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다음 시점의 학교적응에 영향력(지연효과)을 미치는지도 파악하여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이 성공적인 학교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의 발달적 변화 추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시기의 학교적응 발달적 변화추이에서 학교 폭력 피해경험은 동시 및 지연효과를 지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학교적응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15).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0)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44.8%)가 2주 이상의 지속적인 피해경험을 나타냈고, 62.3%가 폭력으로 인해 고통을 느꼈으며, 자살충동을 느낀 학생도 15.8%에 달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경험 학생들의 약 10%는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지속성이 일정 수준 유지되며 만성적인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장안식, 2013). 이처럼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현상은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들은 현재의 적응뿐만 아니라 심각한 불안감, 무기력감, 우울,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 등의 심리적 부적응을 겪게 된다. 특히 청소년시기의 심리적 부적응은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높은 스트레스 수준과 발달상의 문제를 동반하게 된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1998). 또

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처음에는 초조함 혹은 불안함을 느끼지만, 이후에는 반사회성이 생겨 공격적인 성향으로 변하거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불안감 및 위축감을 느끼게 하고, 자아존중감의 상실 혹은 학습관련 주의집중력을 떨어뜨려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한다(김희수 외, 2006; Birch & Ladd, 1997).

이처럼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은 다양한 양상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경험 이후 이들이 주로 보내게 될 장소가 학교라는 점에서, 이들의 학교적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는 지식을 배우는 장소라는 의미를 넘어, 또래들과의 인간관계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학습하게 되는 곳으로서, 청소년의 성공적인 학교적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이은희, 김남숙, 2011). 발달심리학자들도 성공적인 학교생활 적응이 중요한 개인발달과제 중의 하나라고 주장한 바 있다(Rutter, 1985). 여기서 학교적응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학교의 교육환경을 학생 본인의 욕구에 맞춰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만족감을 느끼거나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게 한다는 의미가 포함 된다(김재엽 외, 2011; 조윤미, 이숙, 2008). 즉, 학교규칙 혹은 또래, 교사관계 등의 다양한 학교 환경요인들로부터 심리사회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면 성공적으로 학교에 적응하고 있는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은 학교적응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우선, 학교폭력 피해 초기에는 학교적응 실패의 양상으로 등교를 거부하는 등의 문제를 보이다가(청소년 폭력예방재단, 1996; Foltz-Gray, 1996), 점차 심각한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에 빠지는 일탈행동으로 강화된다(Mrug and Windle, 2009). 극단적으로는 자살을 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Olweus, 1993). 또한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이 교사관계, 학교규칙, 학교수업 등 다양한 부분에서 학교 현장에서 부적응적인 양상을 보인다(Baker & Stryk, 1984). 학교폭력 피해자는 가해자를 닮은 대상, 예컨대 교사라든지 또래의 모습에서 실제로 위협적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부정적인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역기능적인 인지 평가를 하게 되어 학교적응을 어려워한다(김희수 외, 2006).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은 가해 청소년이나 일반 청소년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교사, 교우 관계와 학업에서의 높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된다(양계민, 정현희, 1999).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은 또래와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지 못 해 소외감을 느끼고(김재엽

외, 2011; Schwartz et al, 1998), 학업성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김재엽 외, 2011; Mrug and Windle, 2009; Margolin and Gordis, 2004).

2.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학교적응의 종단연구

청소년시기 학교적응은 초기 아동기에 시작하여 초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발달과제이다. 성공적인 학교적응은 청소년의 학업적 및 심리적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성인기의 직업적 성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공적 전환 등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다(강유진, 문재우, 2005). 이처럼 학교적응은 한 시점뿐만이 아니라 발달 과정 속에서 청소년에게 중요한 과업이다.

학교적응의 종단적 변화양상과 예측요인을 연구한 좌현숙(2012)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학교적응 수준이 시간에 지남에 따라 높아짐을 밝혔다. 그리고 자아존중감, 성별, 부모감독이 학교적응 수준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중2에서 고2까지의 학교적응 변화 패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태균, 2008). 그러나 문은식(2005)의 연구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교적응을 비교한 결과,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의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승환(2009)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교부적응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결과 간 불일치를 나타내고 있다. 즉, 학교적응 발달 변화양상이 일부는 일관되게 나타나는 데에 반해 몇몇의 연구에서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학교적응 발달궤적의 변화를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간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피해로 나타나는 증상이나 문제는 일회적 사건이기 보다는 개인의 적응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권세원 외(2013)는 중학교 재학 시기에 겪은 학교폭력 경험이 고등학생이 된 이후의 자살생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중학교 때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영향력이 고등학생이 된 이후에까지 지속되며, 이로 인한 자살생각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의 발달양상을 연구한 권재기(2011)는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이후에 피해지속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크며, 피해지속 집단의 경우 신체적 공격성과 분노가 매년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집단따돌림이 피해청소년의 자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중단연구(허성호 외, 2009)에서도 집단따돌림을 경험했을 때 피해청소년의 자아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화였으며, 자아존중감 역시 감소하였다. 이는 청소년 시기에 경험하는 집단따돌림이 피해청소년의 자아관과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청소년일수록 학교폭력 무경험집단에 비해 부정적 감정의 변화율이 낮거나 오히려 부정적 감정이 증가하여 비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장안식, 2013). 이와 같이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피해가 발생한 해당연도 뿐 아니라 이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학교폭력 피해경험 청소년이 이후의 학교적응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동일 시점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동시효과)과 이후 시점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지연효과)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아동·청소년 패널자료(Korea Child Youth Panel Survey, KCYPS) 중 중학교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중 1차년도 자료는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조사하지 않아 제외하였고,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조사된 중학교 2학년 시점인 2차년도 패널자료부터 고등학교 2학년 시기인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1차년도 당시 총 2,351명을 대상으로 설문이 진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2(2차 자료)에서 고2(5차 자료)까지 모든 시점에 걸쳐 치가 존재하는 대상을 삭제하였다. 만약 한 시점만이라도 체크가 되었으면 대상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대상은 총 2,312명이었다. 성별은 여학생 1,148명(49.7%), 남학생 1,164명(50.3%)이었다.

2. 측정도구

1) 학교폭력 피해경험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아동·청소년 중학교 패널 2-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학교폭력 피해경험 문항은 ‘심한 놀림이나 조롱당하기’, ‘집단따돌림(왕따) 당하기’, ‘심하게 맞기(폭행)’, ‘협박당하기’, ‘돈이나 물건 빼기기(뺑뺑기기)’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경험유무를 묻는 문항과 횟수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경험을 묻는 문항을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사용하고 매년도의 5개 피해경험 유형을 합산하였다. 5문항 중 한 문항에도 피해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0, 한 문항이라도 있다고 응답한 경우 1, 두 개 문항에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로 변경하여 총 0점에서 6점까지 점수화 하였다.

2) 학교적응

학교적응은 총 20문항과 4개의 하위요인으로 학습활동 5문항, 학교규칙 5문항, 교우관계 5문항, 교사관계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하위요인을 모두 합산하여 학교적응으로 정의하였으며, 점수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으면 학교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학교적응에 대하여 확인된 신뢰도 계수는 각각 2차년도 .848, 3차년도 .836, 4차년도 .828, 5차년도 .809이었다.

3.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학교적응의 변화를 알아보고,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동시 및 지연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모형 1은 학교적응의 발달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학교적응의 변화추이를 파악하였다. 이때 무변화 모형, 1차 함수 모형, 2차 함수 모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최종모형을 선택하였다.

둘째, 연구모형 2는 학교적응 발달적 변화에서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시간효과를 파

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시(t) 및 지연(t+1)시점에서의 시간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적응의 변화양상에서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동시 및 지연효과모형(2-1)을 구성하였다. 경쟁모형인 동시효과모형(2-2)은 각 시점에서 동일한 영향력을 미쳐 효과가 같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다른 경쟁모형(2-3)은 동시효과 모형이긴 하나 각 시점을 자유 추정한 것으로 시점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다. 즉, 동시 및 지연효과모형인 연구모형(2-1)과, 동시효과모형인 경쟁모형(2-2)과 경쟁모형(2-3)을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결론적으로, 연구모형 1은 학교적응의 변화추이를 살펴본 것이며, 연구모형 2는 학교적응의 변화양상에서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시간효과 중 어떤 효과를 지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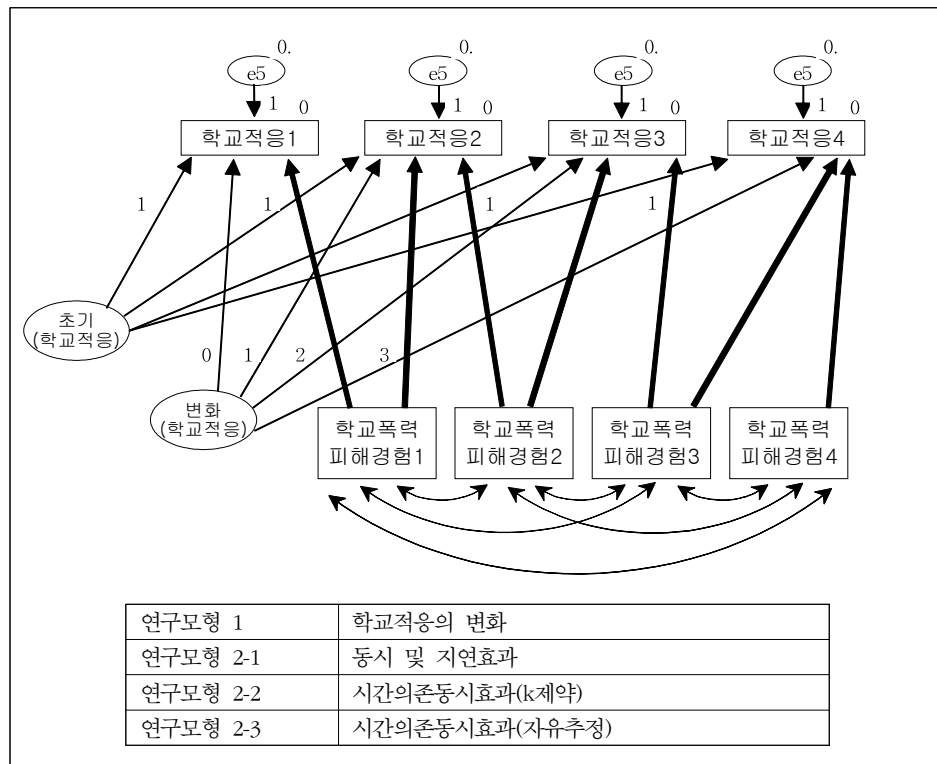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4. 분석방법

분석방법으로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과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먼저 주요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청소년기 학교적응의 발달적 변화를 살펴보고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시간변인으로 하여 동시 및 지연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국치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여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χ^2 , TLI, CFI, RMSEA를 통해 평가하였다. 각 경로계수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TLI, CFI의 지수는 .90이상이면 모델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을 의미하며, RMSEA는 .1이하 보통 .08이하 양호 .05이하는 좋은 적합도 지수로 볼 수 있다(배병렬, 2009).

IV.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주요변인의 일반적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교적응은 점차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빈도는 감소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표 1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구분	변인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종속	학교적응2	2280	1.30	4.00	2.83	.410
	학교적응3	2259	1.00	4.00	2.89	.392
	학교적응4	2080	1.00	4.00	2.93	.367
	학교적응5	2052	1.00	4.00	2.95	.353

구분	변인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시간의존	학교폭력2	2280	0.00	3.00	.082	.284
	학교폭력3	2258	0.00	3.80	.044	.239
	학교폭력4	2108	0.00	2.80	.013	.121
	학교폭력5	2096	0.00	2.00	.010	.100

2.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각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먼저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각 시점과 모두 정적상관을 나타냈고, 학교적응 또한 각 시점마다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학교적응의 경우, 각 시점마다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표 2

각 변인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학교 폭력2	학교 폭력3	학교 폭력4	학교 폭력5	학교 적응2	학교 적응3	학교 적응4	학교 적응5
학교 폭력2	1							
학교 폭력3	.318***	1						
학교 폭력4	.114***	.167***	1					
학교 폭력5	.071***	.080***	.066***	1				
학교 적응2	-.039	-.034	.003	.024	1			
학교 적응3	-.093***	-.083***	-.032	.003	.553***	1		
학교 적응4	-.039	-.069***	-.036	.007	.413***	.485***	1	
학교 적응5	-.081***	-.055*	.005	-.014	.406***	.491***	.599***	1

*** $p < .001$, ** $p < .01$, * $p < .05$

3. 학교적응의 변화양상

청소년의 학교적응 변화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무변화 모형, 1차 함수 모형, 2차 함수 모형을 분석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표 3).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2차 함수 모형의 모형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최종적으로 2차 함수 모형을 채택하였다.

표 3

학교적응의 무변화, 1차 함수, 2차 함수 모형의 적합도 비교

	모형	χ^2	df	TLI	CFI	RMSEA
학교적응	무변화	345.351***	8	.834	.868	.135
	1차 함수모형	27.849***	5	.982	.991	.044
	2차 함수선형	.012	1	1.004	1.000	.000

*** $p < .001$, ** $p < .01$, * $p < .05$

2차 함수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하여 평균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학교적응 초기값의 평균은 2.837($p < .001$), 1차 함수 변화율 평균은 .064($p < .001$), 2차 함수 변화율은, -.009($p < .001$)만큼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의 경우, 초기치, 1차 함수 변화율, 2차 함수 변화율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나 개인차를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공분산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표 4

학교적응 변화의 추정계수

	모형	평균	분산	공분산
학교적응	초기	2.837(.009)***	.135(.011)***	초기-변화= -.057(.011)***
	1차 함수	.064(.009)***	.054(.012)***	변화-이차= -.011(.003)***
	2차 함수	-.009(.003)***	.002(.001)**	초기-변화= .011(.003)***

*** $p < .001$, ** $p < .0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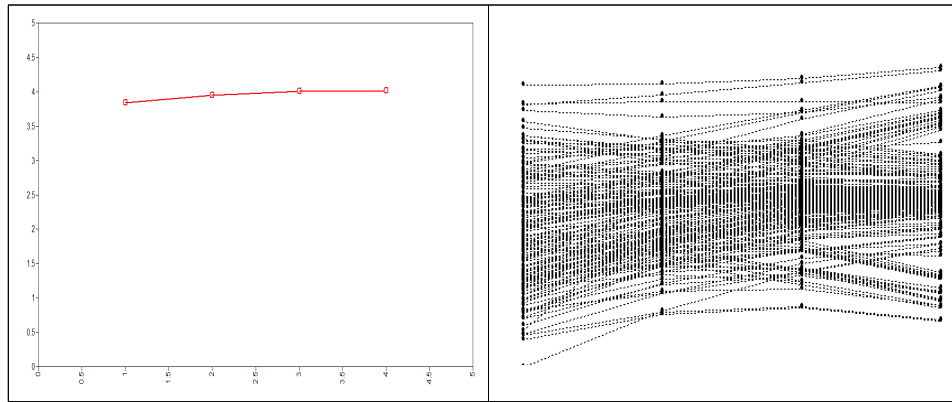


그림 2. 학교적응 변화궤적

4.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시간효과

본 연구에서는 동시 및 지연효과를 파악하는 연구모형(2-1), 동시효과가 동일하다는 경쟁모형(2-2) 그리고 동시효과를 자유추정 한 경쟁모형(2-3)의 모형 적합도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첫 째, 연구모형(2-1)과 경쟁모형(2-2)은 내포모델이므로 χ^2 값의 차이로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연구모형(2-1)은 경쟁모형(2-2)에 비해 χ^2 값이 16.099 작고, 자유도(df)는 6이 작다. 그런데, 유의수준 .05에서의 자유도 6의 χ^2 값은 13.592 이므로 연구모형(2-1)의 적합도가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연구모형(2-1)과 경쟁모형(2-3) 또한 내포모델이므로 χ^2 값의 차이로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연구모형(2-1)은 경쟁모형(2-3)에 비해 χ^2 값이 7.974 작고, 자유도(df)는 3이 작다. 유의수준 .05에서의 자유도 3의 χ^2 값은 7.815이므로 경쟁모형(2-3)보다 연구모형(2-1)의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2-1)을 최종 모델로 채택하였다.

표 5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모형 적합도 비교

모형	χ^2	df	TLI	CFI	RMSEA
2-1 동시 및 지연효과	21.067 [*]	10	.986	.996	.022
2-2 동시효과 (k제약)	37.166 ^{***}	16	.984	.993	.024
2-3 동시효과(자유추정)	29.041 ^{***}	13	.985	.994	.023

*** $p < .001$, ** $p < .01$, * $p < .05$

학교적응의 변화추이와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학교적응의 시간효과 추정계수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에 제시된 표 6과 표 7과 같다. 먼저, 표 6을 살펴보면,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통제한 후 학교적응의 변화추이를 파악한 결과, 2차 함수 변화율, 분산, 공분산이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학교적응을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통제하였으나 학교적응 2 시점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의 t-1 시점으로부터 지연효과를 통제하지 못하였다. 즉, 학교적응 1시점은 그 전 시점으로부터 통제되지 못하여 잠재성장 함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6

학교폭력 피해경험 통제 후 학교적응의 변화추이

	모형	평균	분산	공분산
학교적응	초기	2.839 ^{***}	.134 ^{***}	초기-변화 = -.056 ^{***}
	1차 함수	.070 ^{***}	.052 ^{***}	초기-이차 = .010 ^{***}
	2차 함수	-.011 ^{***}	.001 ^{**}	일차-이차 = -.010 ^{***}

*** $p < .001$, ** $p < .01$, * $p < .05$

표 7에 나타난 동시 및 지연효과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동시효과와 추정계수를 살펴보면, 이차(중2) 피해경험이 이차(중2)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C.R. = -.640으로 1.96 이하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삼차(중3) 피해는 삼차(중3)적응에 유의(C.R. = -2.119, $p < .001$)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차(고1)피해와

사차(고1)적응, 오차(고2)피해와 오차(고2)적응에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연효과와 추정계수를 살펴보면, 이차(중2)피해는 삼차(중3)적응에 유의(C.R.= -2.446, $p < .001$)한 것으로 나타났고, 삼차(중3)피해와 사차(고1)적응, 사차(고1)피해와 오차(고2)적응에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삼차(중3)피해는 삼차(중3)적응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동시효과를 보였으며 이차(중2)피해는 삼차(중3)적응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지연효과를 보였다. 이는 중3 시기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같은 시점(중3)의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중2 시기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1년이 지난 시점(중3)의 학교적응에 영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표 7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학교적응의 시간효과 추정계수

경로			B	S.E.	β	C.R.
학교폭력2	->	학교적응2	-.009	.014	-.012	-.640
학교폭력3	->	학교적응3	-.031	.015	-.037	-2.119**
학교폭력4	->	학교적응4	-.046	.033	-.027	-1.406
학교폭력5	->	학교적응5	-.042	.034	-.021	-1.228
학교폭력2	->	학교적응3	-.031	.013	-.045	-2.446***
학교폭력3	->	학교적응4	-.020	.014	-.026	-1.503
학교폭력4	->	학교적응5	.055	.032	.003	.161

*** $p < .001$, ** $p < .01$, * $p < .05$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까지 학교적응의 변화와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시간효과(동시 및 지연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2에서 고2까지의 학교적응의 변화는 2차 함수 모형의 변화양상을 나타내었다. 즉, 학교적응은 중2 시점에서 점차 증가하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교적응의 변화양상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진학 과정에서 학교적응 수준이 증가하다가 고1 시점을 기준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조미형과 이정은(200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학교적응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문은식(2005)의 연구에서도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교적응을 비교한 결과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의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등학생의 학교적응 수준이 중학생보다 낮은 이유로 최근 들어 더욱더 심해진 입시교육 위주의 경쟁적인 학업분위기, 대학진학관련 스트레스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게 되고 교사, 친구, 주변 환경 등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으며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학교적응도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학교적응의 변화에서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동시효과와 지연효과가 나타났다. 우선, 동시효과 결과는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조수현(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것은 학교폭력과 같은 위험요인은 청소년에게 학교부적응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서, 아동기에 발달시켜야 할 과업을 이루는데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김순혜, 2012)와도 일치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3학년 시기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중학교 3학년 같은 시기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학교 2학년 시기와 고등학교 1학년 및 2학년 시기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동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김계정(1995)은 중학교 3학년을 ‘공부해야하는 시기’로 구분하였고, 신문숙(2009)은 대다수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시험불안을 경험하는 불안한 시기라고 하였다. 즉,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3학년들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이전 시기에 비하여 야외활동 보다는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정적인 시간의 증가는 부정적 선행사건에 대한 반추 혹은 회상 빈도 및 시간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개인의 높아진 불안수준이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김현선(2005)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 2학기 학생들은 학교생활의 흥미 혹은 의욕이 부족하여 교사의 수업진행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정해진 교육과정대로 수업을 이끌어가기보다는 6교시 내내 비디오 시청으로만 시간을 소모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구조적인 수업 과정에서, 일반 학생들은 주위 또래와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으나 학교폭력 피해경험 청소년들은 부정적 사건의 회상으로 인한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다. 졸업

앞둔 중학교 3학년 2학기 시점은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생김에 따라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김현선, 2005).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은 친구들과 대화할 기회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오히려 위축되거나 고립되어 학교적응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잠정적인 것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중학교 3학년 시기의 학교폭력 경험이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 동일시점에 학교적응에 영향력을 미치는지 보다 명확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학교적응의 종단 관계에서 지연효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학교 2학년 시기에서 경험한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이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교 2학년 시기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중학교 3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중학교 2학년 시기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입과 함께 중재 이후 이들의 학교적응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폭력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포괄적 범위의 발달적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합외상으로 간주(정지선, 안현의, 2008)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학교적응의 동시효과를 보였던 중학교 3학년 시기에서 지연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 3학년에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진학으로 인해 학교가 달라지고 서로 멀어지게 되어 학교적응에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학교폭력 피해경험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큰 영향 중 하나인 가해학생과의 접촉이 고등학교 진학과 함께 크게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초기 청소년기를 지나 후기청소년기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어려움이나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개인의 적응능력이 발달적으로 향상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된 요인이나 해석을 위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고등학교 시기에는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동시효과와 지연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고등학교 시기에는 학교폭력 발생 빈도 역시 감소하고 있어(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4), 중학생시기와 달리 인지적·정서적 성숙이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적절하게 극복하고 유연하게 학교적응을 할 수 있도록 중재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 시기의 학교적응에는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

년이 올라갈수록 또래관계의 영향력은 감소하게 된다. 학교적응과 또래관계의 상관관계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나타났다(채선희, 김진숙, 2015). 즉, 학교적응에 미치는 또래관계의 영향력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소하게 된다. 고등학생 시기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학교적응에 동시 및 지연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한 가지 이유로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학교적응이 증가하다 그 이후로 학교적응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진학과 함께 이들의 학교적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집단상담이나 다양한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등학생 시기의 학교적응에서 교사와의 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시기의 학교적응에서는 부모와 또래도 중요한 요인이나 무엇보다도 교사와의 관계가 가장 높은 상관성을 지닌다고 밝혔다(채선희, 김진숙, 2015). 따라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한 시기에 개별적으로 교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신뢰 있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입학초기 이들의 학교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학교생활 안내와 진로탐색 및 스트레스 대처훈련, 대인관계 훈련 등의 집단상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폭력 피해경험 시기에 따른 차별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중학교 3학년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을 때, 즉각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 시기 교사 혹은 상담자의 즉각적인 개입은 이들의 이차적인 피해를 방지하여 학교적응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발생하면 즉각적 개입뿐 아니라 학년이 바뀐 이후에도 학교적응을 도울 수 있는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하여 개인의 적응양상을 살펴야 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수련관 등의 전문적인 상담, 동아리활동, 멘토링활동 등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등학생 시기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동시 및 지연효과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고등학생 시기의 학교적응은 학교폭력 피해경험 이외의 다른 변인과 관련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발달적 측면에서 학교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들이 갖는 효과크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교적응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중단적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종단적인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피해경험의 유무만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많은 집단과 보통집단, 그리고 낮은 집단에 대한 차별적인 학교적응 수준을 파악하지 못 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정도를 구분할 수 있는 척도를 사용하여 집단 별 학교적응 수준에 따른 차별적 개입방법을 밝혀야 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에 따라서도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미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에 따른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유진, 문재우 (2005). 청소년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요인의 영향: 가족배경요인과 가족 관계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한국청소년연구**, 16(1), 283-315.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권세원, 이동은, 장은혜, 한기주 (2013). 고등학교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중학생 시기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중단적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11), 205-231.
- 권재기 (2011).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의 발달양상과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 잠재 계층성장분석(LCGA), 다집단 성장혼합 모형(GMM). **한국아동복지학**, 34, 96-127.
- 김계정 (1995). **고교비평준화 지역 중학교의 학생문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명식 (2008). 아동, 청소년 상담: 일 도시의 남녀 중학생 우울증 유병율과 우울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9(20), 645-658.
- 김순혜 (2012).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아동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분석. **아동교육**, 21(3), 5-17.
- 김재엽, 장용언, 민지아 (2011).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8(7), 209-234.
- 김태균 (2008). 학교적응 변화에 관한 중단연구: 자아통제 및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5(2), 169-188.
- 김현선 (2005). **중학교 3학년 학생의 학년말 학교생활 연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희수, 윤은중 (2004). 청소년이 지각한 교사의 행동과 애착안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5(2), 93-115.
- 김희수, 이재토, 홍성훈 (2006).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이 학교적응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문제연구**, 24, 79-97.
- 문은식 (2005). 중.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 및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9(4), 1087-1108.
- 박경아 (2002). **학교폭력 피해자의 학교적응에 관한연구: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연세

-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배병렬 (2009). **AMOS 17.0 구조방정식모델링(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양계민, 정현희 (1999). 학교폭력이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해자, 피해자, 일반 학생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5(2), 91-104.
- 신문숙 (2009). **중학교 3학년생의 시험불안과 학업적 자아개념: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비교**.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승환 (2009).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영향요인: 위험요인에 대한 학교보호요인의 매개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1(1), 161-181.
- 이은희, 김남숙 (2011). 학교폭력피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탄력모델을 이용하여. **청소년복지연구**, 13(4), 71-89.
- 이진숙, 조아미 (2012). 근거이론으로 접근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교적응과정. **청소년 복지연구**, 14(1), 333-358.
- 이희정, 조윤주 (2010). 학교적응의 종단적 변화와 예측 변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17(2), 253-278.
- 장안식 (2013).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따른 발달적 변화. **한국범죄학**, 7(1), 61-82.
- 정지선, 안현의(2008). 청소년 학교폭력의 복합외상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1), 145-160.
- 조미형, 이정은 (2008). 고등학교 진학 과정(school transition)에서 학교적응 변화: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49, 63-86.
- 조수현 (2004). **초등학생 또래폭력 가해피해 집단의 학교적응과 또래폭력에 대한 태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윤미, 이숙 (2008). 중학생의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9(4), 641-658.
- 좌현숙 (2012). 청소년 학교적응의 종단적 변화양상과 예측요인. **청소년학연구**, 19(6), 1-28.
- 채선화, 김진숙 (2015). 학교급별 부모애착, 교사애착, 또래애착과 학교적응 간 상관관계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16(4), 339-358.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1996). **1996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청소년폭력 예방재단.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1998). **1998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청소년폭력 예방재단.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8). **2008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청소년폭력 예방재단.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9). **2009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청소년폭력 예방재단.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0). **2010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청소년폭력 예방재단.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4). **2014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청소년폭력 예방재단.
- 허성호, 박준성, 정태연 (2009). 집단따돌림이 피해청소년의 자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0(4), 279-299.
- Baker, R. W., and Siryk, B.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31, 179-189.
- Birch, S. H., and Ladd, G. W. (1997).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5, 61-79.
- Bollen, K. A., & Curran, P. J. (2006). *Latent curve models: A structure equation perspective*.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Foltz-Gray, D. (1996). The Bully Crap: Young Tormentors and Their Victims Find Ways out of Anger and Isolation. *Teaching Tolerance*, 5, 18-23.
- Margolin, G., & Gordis, E. B. (2004). Children's Exposure to Violence in the Family and Communit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3(4), 152-155.
- Mrug, S., & Windle M. (2009). Bidirectional Influences of Violence Exposure and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ce: Externalizing Behaviors and School Connectednes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7(5), 611-623.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Cambridge, MA: Blackwell.
- Rutter, M. (1985).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and resistance to psychiatric disorder.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7, 598-611.
- Schwartz, D., McFadyen-Ketchum, S. A., Dodge, K. A., Pettit, G. S., & Bates, J.

E.(1998). Peer Group Victimization as a Predictor of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t home and in school,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0, 87-99.

ABSTRACT

A study on the time effect of experiences of school violence on the school adaption of adolescents

Lea, Eunkyong* · Kim, Minhwan** · Lee, Yujin** · Lee, Eungtae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nging trajectory of school adaption and to examine a time effect of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on school adaption. For this purpose, utilizing the data of child and adolescent panel from the second grade of junior high school to the second grade of high school, a total of 2351(1,148 females, 1,164 males) were selected as the subjects of study. The result of the analysis using the latent growth model are as follows. First, the change of school adaption increased at the second grade of junior high school to some point, but from that point forward, it tended to decrease. Second, a time effect of the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on school adaption was supported, but a concurrent effect was confirmed only in the third grade of junior high school, and a lagged effect was confirmed only in the second grade of junior high school.

Key Words: school violence, school adaption, a time effect

투고일: 2016. 12. 5, 심사일: 2017. 1. 25, 심사완료일: 2017. 1. 25

* Myungji University Professor, First author

** Myungji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 course, Co-author

*** Myungji University, A part-time lecturer, Corresponding author, samneng@hanmail.net